

제428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19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3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를 하는 날이므로 장관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책무이겠습니다만 국가적 현안인 한미 무역협상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 상원의원단과의 면담이 17시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양당 간사의 양해하에 16시 20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이석을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석 전에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장관께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당 간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예산결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기회가 있으시니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사무처 인사로 새롭게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영환 행정실장 새로 보임됐습니다.

(인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21일 그리고 25일 이렇게 사흘에 걸쳐 지난해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내용과 법령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 재정집행 전반을 점검하는 결산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정책과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사를 당부드리며 정부 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의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원이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위원장 이철규** 자료 요청이요?

김원이 간사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언론보도를 통해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의 구체적 내용 일부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와 일감 보장, SMR 등 사전 검증, 50년 계약 기간 등 굴욕적인 조건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은 기업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를 거듭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을 통해 주요 내용이 사실상 공개된 이상 더는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검증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한전, 한수원, 산업부로부터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서 원문을 제출받아 국익을 훼손하는…… 불투명한 협상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상임위 의결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자료 요청 관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올 1월 체결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타협 협정서 체결을 앞두고 작년 11월에 한전과 한수원의 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었고요. 또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웨스팅하우스와 조속히 협상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 즉각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업부와 한전·한수원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즉시 웨스팅하우스 비밀 합의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국민이 이 협정이 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체결되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 협정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50년간 팔아넘긴 중대한 매국적 행위라고 저는 규정하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성무 위원** 정진욱 위원님과 김원이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요청의 반복인데요. 그런데 그 타협 협정서 안에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요청하면 웨스팅하우스에 통보하고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에만 통보하면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비밀이라고 해서 핑계대면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시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한전의 비공개 타협 협정서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도 이것과 연관해서 대단히 우려되는 내용들로, 아마 공개를 못 한 이유 중에 그런 미심쩍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께는 비공개 열람 형식으로라도 체코 원전 최종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늘 당초에는 한수원 사장의 참석이 제외됐었습니다. 아침에 언론보도 이후 양당 간사의 요청이 있어서 한수원 사장의 출석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4시 30분경 한수원 사장이 회의장에 입장할 것이고요. 그때 가서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이 십분 공감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한수원 그리고 한전과 잘 상의해서, 국회 자료제출 여부 등을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따가 양당 간사와 잠시 협의하에 이 자료 공개를 오늘 할 것인지, 보고를 오늘 구체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진행되는 일정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받을 것인지는 이따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전남 영광의 낙월해상풍력 관련해서 낙월해상풍력 시행사인 낙월블루하트라고 있습니다. 그 관련 계약 내용하고 사업 참여 자격 조건 등 제반 사항들하고 가장 납입했을 때 자격미달 시 조치계획 그리고 중국 국영기업의 참여 논란에 대한 산업부 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4시14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의 상정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등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안보 강화를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투자유치 확대 및 통상 강국 도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소부장의 자립화 및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핵심 에너지·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여 주요 광물, 석유 등의 공공 비축을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비용 절감도 시행하였습니다. 수출 성장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출 애로 해소 및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글로벌 중추 국가에 맞는 통상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집행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7조 6379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1조 3410억 원 중 11조 6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65억 원, 불용은 274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19조 5863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3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작년에는 특히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심화되었으며 최근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기조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조속히 이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기존 제품 중심의 수출지원체계에서 테크서비스 수출 및 산업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여 정책자금 상환연장의 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10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과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 도소매업 위주의 지원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집행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514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조 5598억 원 중 6조 5721억 원을 집행하였고 86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서 총 23조 3617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향후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와 중기부 공히 세부 사항은 제출된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4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을 제

고하고 고부가가치의 명품특허를 창출·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R&D 성과창출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특허정보를 연계한 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특허심사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지식재산센터를 광역형으로 개편하고 지원 국가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관,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혁신기업 육성에 힘썼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기금별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무역보험기금출연은 편성 당시 전망보다 기금 자체수입이 초과수납되고 유효계약이 과소체결되어 기금배수가 당초 전망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자체수입 및 기금총액 전망을 고도화하여 출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 쪽지입니다.

로봇산업기술개발 등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수행된 181개 R&D 내역사업은 2024년 평가된 연구과제 중 97.5%에 대해 성공판정을 내리고 성공과제 중 98.1%에 대해 보통판정을 내리는 등 절대 다수의 연구과제에 대해 성공 및 보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예산 및 정책결정에 실효성 있게 환류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두 번째 쪽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임에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에너지바우처의 사용률이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득수준 및 주거환경과 같은 수요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지원은 2024년 13개 연구용역 과제 중 12개 과제에서 이월이 발생하였고 이 중 6개 과제의 계약체결이 11월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부터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사업수행체계를 정비하여 일반연구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은 전년 대비 4.3배 증가한 4273억 6600만 원의 신규과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규과제 700건 모두를 하반기 협약과제로 지정·집행하였습니다. 소재부품 R&D 사업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편성 시에 상·하반기 신규과제를 적절히 배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하단입니다.

농어촌전기공급은 연료비 부족을 이유로 연말에 예산을 증액하는 자체변경을 하였으나 불용이 발생하는 등 매년 과소편성과 자체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준 연료비 산정 시에 합리적인 단가 예측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9쪽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10쪽의 무역보험기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허청 소관 세출 사업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전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사업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하거나 기금에 예탁하는 여유 재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미국, 중국, EU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심사관을 확충하는 등 특허청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해 성소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강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창업생태계 기반구축을 위한 스타트업파크 사업은 매칭 지방비보다 국비를 먼저 사용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 전액을 일시에 교부하고 있

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다음,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입니다.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은 전년도 결산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지원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R&D 지원 등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일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와의 연계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조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책 패키지 간의 사업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사업은 2021년 팁스(TIPS) 운영사의 신청자격을 확대한 이후에 창업기업 추천권 연간 소진율과 창업기업당 평균투자액 등 운영사 실적이 법 개정 전보다 오히려 저조하므로 신규 운영사의 투자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기반의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 감소 문제입니다.

2024년부터 통화완화 정책기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 수요자들의 체감금리는 2024년 2.68%에서 2025년 2.96%로 상승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면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와 관련하여 민간부문 출자 결성실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2024년 정부부처가 출자한 모태펀드 출자 비중은 전년 대비 5.3%p 증가한 12.8%인 반면에 민간부문의 출자 비중은 전년 대비 6.3%p 증가한 7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정책자금 투입이 민간투자를 실질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모태펀드 출자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펀드를 조기에 결성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금융당국의 만기연장, 상환연장 등 유동성 지원 확대에 따른 부실 이연의 효과가 2024년부터 각 기금의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도약지원자금은 기초 융자잔액 대비 대손금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보증기금대위변제 역시 코로나19 시기 만기연장 조치에 따라 낮게 유지되던 사고율이 2023년부터 24년까지 연속하여 당초 추정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금 재정악화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를 기관운영경비로 집행한 사업들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보조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비성 경비에 지출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은 상품권 판매촉진 용도의 판매촉진금을 상인연합회 경상운영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금년 5월 법 개정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향후 별도의 보조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산업부장관님 그다음 한수원 사장 다음 양당 간사와 잠시 사전협의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입니다만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질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는 결산소위자료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장관님, 현안부터 하나 물어보고 합시다.

체크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굴욕 계약이다’ 이렇게 지금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관 청문회 당시 여당·야당 위원님들 질의에 그때 장관께서는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굴욕적인 계약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도 계약 내용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김성원 위원 굴욕적인 계약 아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가 잘못 알고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체코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청문회 때 답변하셨던 그 내용이랑 지금 같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김민석 총리보고 자꾸 오버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자, 다음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월 20일 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방안 발표하실 예정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유화학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김성원 위원 아니,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석유화학을 어떻게 구조개편을 해 나갈지에 대한 3대 방향을 정하고 관련 업체들과 같이, 이 분야를 우리 민관이 공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경쟁력 방안의 어떤 기본원칙 그리고 방향, 그 업체가 같이할 일들을 정하려고 합니다.

○김성원 위원 아직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제가 이쪽 석유화학 부분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현재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위기를 넘어 생존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구조개편 방안 산업부에서 발표하실 게 업체 간 설비 통합 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 고부가가치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세 번째는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법이에요. 공정거래법 규제, 공정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이 부분은 작년서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산업부에서 이 부분의 실효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관련되는 우리 기업활력법 관련 내용들을 조금……

○김성원 위원 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기업활력법 관련 내용들에 있는 부분들을 좀 개정을 해서 이런 관련, 기업결합 관련된 심사를 원활하게 하는 내용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요구하는 공정거래 완화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작년 12월하고 지금하고 바뀐 부분이 있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작년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계가 굉장히 생존에 가까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 신속하게 기업들이 기업 결합이든지 이런 내용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제 기본 취지고 그런 입장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비슷한 업계, 석유화학업계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장관께서 저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정유업계, 철강업계 여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연쇄적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

분들이 어쨌든 공정한 시장경제라든지 신속한 사업 재편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른 업종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동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석유화학업계만 했을 경우에는 다른 업계가 해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의 때문에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게 공정위 의견인데,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지금 특례가 특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석유화학업계 이것 손을 안 댈 수 없는 상황이고 구조조정은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공정거래법은 반드시 완화를 해야지 되는데 그다음에 정유업계 그다음에 철강업계 이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정말 심분 공감을 하고요. 사업 재편을 원활히 해서 우리 기업들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성원 위원** 어쨌든 20일 날 발표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산업부장관님 그리고 한전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체코 원전에 대해서 작년 민주당 위원들이 여러 우려의 말씀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놀라움으로 이렇게 저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를 들고 오는 그런 노인의 모습인데요. 작년에 보면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은 계약당시에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모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차근차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원전 1기당 1억 700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납부하는 것, 물품·용역 구매계약을 6억 5000만 달러에 제공하는 것 맞습니까?

김동철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회가 다른 어떤 출구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현재의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도 서명 당사자로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출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계약 내용에 관해서는……

○권향엽 위원 협정 계약 50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러니까 다른 출구를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SMR 포함 여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물론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수원 소관이기 때문에 한수원 사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엉터리 계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엉터리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권향엽 위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러니까 저도……

○권향엽 위원 계약을 한 사실 자체는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렇지요. 서명은 했습니다.

○권향엽 위원 서명을 하셨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서명을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향엽 위원 8월 21일 날 한전, 산업부, 한수원 직원들이 미국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지요? 이 계약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물론 있습니다. 그 계약 때문에 갑니다.

○권향엽 위원 이 계약 때문에 가시는 것이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권향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호현 2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시 에너지정책실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러한 무리한 계약인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 에너지 당국과 수출통제 협력을 하는 수출통제 당국자로서의 협의를 긴밀하게 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일정 정도 현황, 상황 보고는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2024년 11월에 한전과 한수원이 비공개 이사회를 열었고 웨스팅하우스와 비밀합의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대통령실에 보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산업부에서는 누가, 대통령실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관계 부처라든지 유관기관하고 공유를 합니다. 다만 당시에 어떤 절차,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권향엽 위원 말씀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후에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12월 27일에 탄핵이 되었고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

스 간 양자협정을 체결한 2025년 1월 16일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내란특검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박상언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웨스팅하우스 관련 1조 원 로열티 불공정 계약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을 50년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형원전은 물론 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홍보한 것처럼 이 계약이 원전 수출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적당하고 타당한 계약인지, 아니면 5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조 원 이상의 터무니없는 부담조건을 수용한 종속계약, 밀실계약, 비밀계약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도 지금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하고 조금 전에 한전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요청도 지금 거부하고 있지요. 한전과 한수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전력산업, 전력생산설비는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체결한 국가기간산업인 전력 산업·설비에 대한 계약 내용을 완전히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국가재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좀 여쭙보려고 합니다.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이유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 계약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그 이익과 손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질 텐데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전 사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 대신 일단 산업부장관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봤습니다.

○박상언 위원 이 계약에 대해서 언론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일감을 주도록 계약해서 한국의 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한전·한수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장관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두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한수원이라는 팀코리아하고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팀코리아가 법적 주체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우리 편의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나머지 주체는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보도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팀코리아에는 장관님도, 장관 취임하시기 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전·한수원 두 CEO와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때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아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곽상언 위원** 아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곽상언 위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1조 원이 정확하게 무엇의 합계입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품·용역 대금은 원전 1기당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

○**곽상언 위원** 보도 안 보셨어요?

기술사용료, 로열티는 원전 1기당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파악하기에는 기술료가 한 3.5억 불 그리고 역무가 13.5억 불로 지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일단 그 1조 원의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파악해서 가지고 국회에 좀 알려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것은 알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 원자력발전소의 원천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누가 갖고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이 협약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곽상언 위원** 산자부장관은 한전의 감독기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곽상언 위원** 감독기관이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계약에 참여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계약에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약 자체는……

○**곽상언 위원** 실무상 지원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이 계약에는 저희 산업부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새 장관이시니까 전의 업무 절차를 확인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곽상언 위원** 예.

그러면 한전과 한수원은 지금까지 원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에 원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텐데 원전 1기당 물품·용역 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술사용료, 로열티, 검증 비용, 컨설팅 비용 이런 모든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 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분명히 산업부 내에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세협상 때문에 미국 방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간에서 국민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과 철강·반도체·화학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호한기를 넘어서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아우성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제 기업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게 기우에 불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공기기업들조차도 국산보다는 외산을 선호해서 실질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그런 서운함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것은 장관께서는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전남 영광에 한빛해상풍력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낙월해상풍력도 마찬가지로 한빛해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곳에 명운산업개발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여기에 화면이 뜨는가 모르겠는데—중국에너지건설공사가 설계·조달·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교통건설공사 등 국영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건설 시공 1위 정도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중국 국영기업들이 실무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중국에너지건설공사 자회사 연구소 홈페이지에 저렇게 영광 낙월해상풍력 관련해서 입찰 공고, 체결했다고 뜨고 있고, 지금 중국교통건설공사 산하기관의 물자 구매입찰 공고가 저렇게 버젓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번역한 겁니다. 번역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안보 위협이나 해양산업 생태계 위협이 아주 심각한데 총사업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합니까, 낙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낙월이……

○구자근 위원 2조 300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2조 3000억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총금액 중에 2조 원 정도가 중국에 하고 사업비가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국에 넘긴 형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운산업개발은 바지 형태밖에 되지를 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이, 이 많은 국민들의 혈세들이 지금 중국에 넘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장관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 업체에 장비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명운산업개발은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납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중국 선박의 불법 기항, 그러니까 지금 중국 국적 선박이 우리 영광 해역에 해양수산부 허가도 안 받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지금 이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한 입장입니다.

보고는 받으셨지요, 지금 이 전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지금 이 명운산업개발 사장이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산자부 고위공무원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작년 9월에 퇴직했습니다. 무역투자실의 투자정책관이었던—이게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정종영 전 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명운산업개발 사장이고 낙월블루하트 대주주입니다. 시행하는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 어떤 이야기가 도는가 하면 퇴출이 마땅한 이 업체가 오히려 낙월에 이어 가고 새로운 프로젝트인 한빛해상풍력에도 들어가 있는데 특정 라인을 믿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업계 관계자들이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빛해상풍력이 7월 말에 경쟁입찰공고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루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눈치를 보는지, 커넥션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산업부에서도 내부에서 이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겠냐,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께서 잘 살펴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 실정입니까?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이렇게 해서 기업들은 죽을 맛인데, 지금 이 한빛해상풍력도 2조 2000억입니다. 총 합치면 4조 5000억의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혈세가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장관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 아니기를, 실무에 계셨던 장관님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그 직을 걸고라도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여기?

○송재봉 위원 순서가 뒤인 줄 알고……

○위원장 이철규 그러세요?

다음 그러면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김원이입니다.

일단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김원이 위원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민생지원금 1인당 15만~5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를 했는데 소상공인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에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하고 있고,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 하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75.5%가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조사한 9개 카드사의 매출액 분석한 결과도 지급 첫째 주에 직전 주, 그러니까 앞선 주에 대비해서 19.5%가 늘어났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소비자심리지수도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직접 가서 보면 현장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원이 위원 아마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개인택시사업자 등 소비쿠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개인택시사업자는 부담 경감 때문에 말씀하신……

○김원이 위원 부담 경감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많이 풀어 주셔서, 장관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 다음, 김동철 한전 사장님 앞으로……

사장님, 체코 원전 수주 위해서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열심히 뛰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체코 원전은 저희 한전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전이나 한수원도 얘기가 나오길래.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원전 수출통제 규정 위반이라는 그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분쟁이 그동안 있어 왔고 이 분쟁을

해소해야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서울경제 보도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요?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봐도 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저는 그것 답변을 회피할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국회가 출구만 만들어 주시면, 적절한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만들어 주면 응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김원이 위원 사장님,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불리한 내용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원전산업 전반의 이익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원이 위원 알겠습니다.

24년 7월에 보면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됐다라고 엄청 기뻐하셨다는 보도가 됐어요. 그 보도 보셨지요, 당시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글썄요, 기억에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이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라든가 체코 원전 협상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충분히 소통했었지요? 아까 이호현 차관님도 소통했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실과도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는 상위 기관하고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김원이 위원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불리한, 서울경제에 보도된 불리한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셨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고요.

○김원이 위원 그러면 불리하지 않지만 서울경제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셨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한전 사장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김원이 위원 암묵적 동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와 대통령실과 소통해 왔고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고 전달되어 왔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예견되고요.

한 보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의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내부 반발이, 내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뒤에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됐다라는 언론보도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번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수원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일 텐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장님, 우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황주호 사장님 나오세요.

비밀준수의무가 있다는 이 협정서가 어떻게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됐을까요? 뭐 짚어는 게 있습니까? 한수원에서 흘린 건 아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상상 못 해요?

김동철 사장님, 출구를 마련해 주면 발언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서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무슨 출구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마련하면 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우선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법 규정과 정부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김정호 위원 정부의 요구?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정부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정부기관이 어디입니까? 산자부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국회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문서로 우리가 요구하면 줍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국회 의결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김정호 위원 잠깐만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조금……

○김정호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요.

검찰에 저희가 수사 의뢰해도 공식적으로 출구 마련이 되는 겁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수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됐습니다. 말할 테니까……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주호 사장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김정호 위원 한국형 원전 APR1400·1000 이것 독자기술 맞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기술원천성은……

○김정호 위원 예스 오어 노, 빨리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기술원천성은 전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전에는 뭐라 그랬나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량한, 개발한 거다.

그러면 독자기술이 아니니까 독자 수출도 못한다, 그렇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것은 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협상 여부에 따라서 수출도 하고……

○김정호 위원 황 사장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김정호 위원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받습니다.

○김정호 위원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번에 체코 원전 수출 승인받았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체코 원전 수출 사후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직 못 받았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김정호 위원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라는 이야기는.

○김동아 위원 말장난을 하고 있어!

○김정호 위원 이게 복제기술이기 때문에 한수원의, 전신인 세바스찬 엔지니어링의 SYS80+ 그 기술을 10년간 3000만 불 주고 복제해서 APR1400·1000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천기술을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자기 거다라고 하고 소송까지 갔던 거고.

소송은 왜 중단했어요, 원천기술이 독자기술이라고 한다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빨리 체코 원전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라라고 해서 부리나케 안덕근 장관, 김동철 사장, 황주호 사장, 거기에 이호현 에너지실장까지 뛰어가서…… 사실상 노예 계약 아닙니까?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동의? 동의 묻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되고 있는데, 그동안 비밀로 은폐했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기술자의 입장에서 전혀……

○김정호 위원 기술자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김정호 위원 황주호 사장은 기술자 맞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기술자이자 경영자입니다.

○김정호 위원 CEO 아닙니까, CEO, 경영책임을 지는. 무슨 기술자로 도망칩니까? 기술자가 그러면 자기 한국 독자기술 주권을 이렇게 팔아먹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실로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가정해서 이 로열티나 물품·용역 계약 그 사용료를 혹은 조달금액을 계산해서 체코 원전에 적용해 보면 16억 5000만 불입니다. 2기니까요.

뭐 다른 것은 차치하고 그러면 전체 EPC 수주금액이 186억 불이지요, 체코 원전 두코

바니 5·6호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금방 떠날 것 아닙니까?

186억에 비해서 이 16억 5000만 붙이면, 거기에 연료분까지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 정도를 고스란히 웨스팅하우스에 떼 주는 겁니다.

한전이 바라카원전의 지금 올해 상반기 결산 결과 적자가 359억 아닙니까? -0.2%.

그러나 한수원과 한전이 지금 런던상사중재원에 분쟁 들어가 있지요? 소송 들어가 있지요?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10억 불짜리 아닙니까? 1조 3000억. 만일에 여기서 한전이 지면 한수원은 10억 불을 받는 것이고 한전이 이기면 못 받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적자가 국민들 부담으로 전가될 상황 아닙니까?

김동철 사장님, 지금 한전의 누적 부채가 얼마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연결기준으로 203조 정도 됩니다.

○김정호 위원 203조. 지금 누적적자는 얼마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지금 연결기준 한 39조 정도.

○김정호 위원 그런 적자의 원인들이 단지 전기요금을 못 올려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투자하고 적자로 수출하고 방만하게 경영하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그런 누적적자가, 연결재무제표의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 겁니다.

한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임기 끝나고 나면 이것 자기 쌈짓돈으로 갚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정호 위원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두 분?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 드러났으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위원장 이철규 정리하시고요, 답변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적절하게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통만 치시고 하다 보니까…… 두 분 일어나 보세요.

한수원 사장님, 2017년에 정부하고 한수원이 우리 원전기술 독립선언을 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위원장 이철규 그것 왜 국민들 속였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게 원전기술하고 자립기술하고의 차이에서 설명이 잘 어려운……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이게 원전을 당시에 우리가 10년 단위로 로열티를 3000만 불씩 부담하면서 10년씩, 10년씩 연장해 왔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2017년에 3000만 불, 10년간 하면 또 2027년까지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지요.

○**위원장 이철규** 그걸 포기했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해서, 정부가 바뀐다 해 가지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소신껏 답변하시고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정확하게 다 공개를 못 하는 입장을 사전에 정부 측에서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데요 다음번 회의 때는 모든 걸 다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김정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올 1월 18일 날 체결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하고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지난번 상임위 때 LNG선 이야기 나올 때 탱크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 자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처럼……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볼게요.

기술이 자립 안 됐다라는 것은 오늘 다 얘기하시는 거고 지난해 국감에서 저도 지적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원전 설계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원전사업을 계속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적정한 계약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보실 때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이 적정한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뭐를 봐야 됩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봐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 생각에는 일단 보통 그런 데 로열티가 다른 업종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내용의 절차라든지 잘 지켜져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적정한 일반적인 수준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거고 우리가 향후 해외 원전 수출할 때 과연 순이익,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산업부 판단 안 하셨어요, 당시에? 장관님이 되시고 나서 보고서 같은 것을 나중에 보고받으신 바 없습니까?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이 자리에 와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한전과 한수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에다 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 관련하고 협상을 하면서도 주요 내용은 보고 받으셨을 거고. 산업부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장관 아니셨지만 지금이라도 챙겨 봐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적정한지 지금이라

도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양해라면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다음 방미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원자력 관련된 한미 간의 협력관계가 굉장히 같이 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게 그런 부분에 혹시 영향을 줄까 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주주가 누구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우리 정부입니다.

○**김한규 위원** 정부만 주주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정부와 국민입니다.

○**김한규 위원** 정부하고 산업은행 합쳐 가지고 51% 갖고 있고 나머지 49%는 상장돼서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 회사의 상업적인 전망은 어떤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리고 산업부도 마찬가지로요. 정부 돈이 지금 51%나 들어가 있는데 계약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국가에 손해를 미치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주주로서 이사회 때 어떤 논의를 했는지 보고받으셨어요? 한전이나 한수원 이사들 많잖아요. 사외이사들도 있고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 어떤 검토, 아까 말씀하신 적정한 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확인해야지요. 그렇게 안 되면 이것은 배임입니다.

한국전력 자체에, 한수원 자체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 이것은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도 감독하지 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전력은 당시 1월 달에 진행한 이사회 의사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사록 자체를 공개 안 할 수 없어요. 필요하면 해당 항목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 지금처럼, 올해 1차 이사회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주무 부처로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주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계속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 계약 조항을 누가 넣은 겁니까? 계약당사자가 한전·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아닙니까? 이 2개 당사자들이 정부에

는 제공하겠다, 국회에는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예외 조항을 받았으면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비상장회사예요.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 계약 자체가.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비상장회사인데 2대 주주가 49%를 갖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65% 올랐어요. 뉴욕 종합주가지수는 2.91%가 평균으로 올랐습니다. 이 회사만 왜 이렇게 올랐겠냐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투자자들은 이게 웨스팅하우스한테 유리한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료가 없잖아요. 판단할 자료가 있게 산업부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서왕진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한수원 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쪽 대로 좀 와 주시겠습니까?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웨스팅하우스 협상에 직접 관여하셨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내용 다 보고받고 지휘하셨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서왕진 위원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체코 측과 원전 수주 계약을 좀 급하게 완성하기 위한 줄속 또 불공정 협약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의 요구와 주장을 수용한 게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웨스팅하우스의 그 당시 경영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주주들과도 또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금 그 협상이……

○서왕진 위원 제가 여쭙본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요구, 주장이 적정하고 정당하고 그래서 우리 측이 그 협상 결과를 받아들인 거라고 판단한다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아까 기술 자립하고 원천기술하고 차이가 있는데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또 상임위에서 질문할 때마다 기술 자립을 100%, APR1400을 완료했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 협약 결과를 보면 이 라이선스 비용을 상당 정도 지불하는 협약을 확정함으로써 사실은 기술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효과가 없고 결국은 원천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라는 점, 기술 자립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자체

가 원전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 이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애초부터 ‘100%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없고요. 저희 원자력계의 일부에서는 기술 자립을, 100% 우리 기술로 다 확보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시다만 이것이 상업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시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100% 기술 자립이라고 했을 때 100% 기술 자립이면 우리가 수출하는 데 우리 기술인데 왜 로열티를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점에 관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한 것이 상당한 혼선과 오해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제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기게 홍보를 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이번 협정을 통해서 불가피한 협정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음에 팀코리아가 원전 수주를 할 때 설정했던 계약 내용 또 기대했던 내용에 비해서 이번 협상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재주는 팀코리아가 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버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실제 처음 수주할 때 설정했던 두산·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한국전력기술, 한수원이 담당하기로 했던 사업 내용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변경된 내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총액하고 또 퍼센트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마치 웨스팅하우스한테 큰 포션이 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다음 기회가 되면, 아까 한전 사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저희한테 출구를 만들어 주시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와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24조라고 명시적으로, 그것도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힘듭니다마는 2기 24조인데 그중에서 60%를 현지 계약을 하고 또 1기당 2조 가까이를 웨스팅하우스한테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짧게 마무리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 협정이 당시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너무 급하게 간도 쓸개도 다 내준 매국 협상이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 자체가 아주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점과 관련해서 이런 국익 훼손 행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청문회,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한수원·한전 이사의 어떤 배임행위까지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감사 청구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 생각에는 일단 조금 전에 두 사장님께서, 국회에서 어떤 출구를 만들어 주시면 이야기를 한번 소상히 들으시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수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웨스팅하우스는 그냥 엔지니어링 회사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 부분이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플러스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소상히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그때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체코 원전 가지고 1년 넘게 우리가 꾸준히 우려를 지적해 왔고 또 정보 공개를 요구해 왔었는데 어제 서울경제 보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윤석열 정권을 가리켜서 글로벌 호구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언론을 통해서 한번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내용은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때마다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굴욕 계약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걸 누가 봐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 내용만 보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누군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로열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계에서 한 5~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그런데 내용을 소상히 한번 받아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솔직히 다 안 받아서……

○**송재봉 위원** 모르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술사용료가 과거에는 10년간 3000만 달러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것은 맞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과거 97년, 전에 계약할 때……

○**송재봉 위원** 97년, 전에.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 1기당 1억 7500만 달러라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97년과 25년 그 사이 갭도 있고……

○송재봉 위원 그렇다고 해도 기당, 1기당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중간에, 원전이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큰 붐이 있어서 그만큼 시장에서의 가격은 또 많이 올라간 상황이긴 합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다고 해도 10년간 3000만 달러에서 1기당 1억 7500만 달러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원전 업계에서는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정권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 당시 서둘러서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24년 12월 한전, 한수원 비공개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이걸 무리한 계약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한수원 사장님, 이사회에서 그런 지적이 됐던 건 사실인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런 지적까지는 없었고요.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한 질문과 답변은 있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실 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적절하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송재봉 위원 지금 적절하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공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공개해 주세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식 요청을 해서 해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적절하게 요청했는데 지금 안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돼서 이렇게 지속적인 그리고 굴욕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이런 의견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한수원 사장님, 대통령실에서 일체 그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는 직접 대통령실을 상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송재봉 위원 이거 못 들었다, 전혀 그런 거 없다 이런 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는 직접 대통령실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송재봉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못 들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정진욱 위원 대통령실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황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우리 위원님들, 여기……

○정진욱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예요?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송재봉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정진욱 위원 용산 사람 만난 적 없다고?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여기 와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여기 피감기관한테도 그렇고 집단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아 위원 위원장님도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가 부적절한 것을 먼저 지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그러지 마시라니까.

아니, 잠깐. 지적을 하더라도 위원장이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기가 지금 정부 측과……

○송재봉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 시간……

○위원장 이철규 예, 스톱을 해 주세요. 스톱을 시켜 났으니까.

지금 송재봉 위원님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에 질의자의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옆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막 이렇게 정부 측 또 그다음에 산하기관 관계자를 세워 놓고 단체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후에 본인 질의 때나 이럴 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봉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송재봉 위원 특히 저는 차세대 원전 SMR 관련해서도 차세대 원전 모듈을 새로 개발한다고 해도 웨스팅하우스에 수출 전에, 사전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맞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확인해 드리려면 저희한테 적당한 출구를 마련해 주시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재봉 위원 그래서 이런 식의 계약 내용이 알려지고 이 내용을 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굴욕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서둘러서 이렇게 손해 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 보는 계약을 체결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꼭 책임지세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위원장 이철규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시……

○위원장 이철규 질의를 하시지요.

○허성무 위원 질의를 하라고요?

○위원장 이철규 예, 하시지요.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뭐 위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한수원 사장님도 그러고 한전 사장님도 그러고 출구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출구라고 하면 상임위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가능할 수 있고 또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위원장이…… 잠깐 스톱을 해 주세요, 이게 질의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걸 질의도 하고 답변을 또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간의 원자력 관련 모든 프로세스가 매듭이 지어지면 다음 기일에 의결로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쭉 하시지요.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의결해 주시고 이런 청문회 개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약속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건데요. 지난 2월에 우리 상임위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법안을 마침내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폐기장 시설 구축의 법적 기반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는 제대로 마련이 됐지만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방폐장을 만들고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의 핵심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방폐물 관리 비용도 있는데 그거는 뭐 미미하고요.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이게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액수도 해마다 늘어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2011년부터 해 가지고 24년까지 2395억에서 7929억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이후에 재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만든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고 재산정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될 게 필요한데 지금 너무 적게 거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예정처에다가 한번 이거 재산정을 해 달라 요청을 드렸더니 실제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다음 표 나와 있네요.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결국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은 할인율이 1.52%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재산정을 해서 시뮬레이션1, 2 나와 있는데요. 1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0.78로 하면 돈이 엄청 늘어납니다. 시뮬레이션2로 하면 더 많이 늘어나지요. 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가는 게 맞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알고 봤더니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산자부가 전혀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 내용을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가지고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허성무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원자력에너지라는 게 사실은 이게 마지막 폐기물 처리가 잘 안 되면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라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화장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다 여기서 나가는 건데 이 기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그동안 기재부가 이 기금을 공자기금으로 자꾸 이렇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24년만 해도 3조 8880억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게 기재부로부터 우리가 이자를 나중에 받을 때는 2.2%를 받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 기금으로 운용했던 수익은 8.8%입니다. 약 4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거는 또 특별하게 부담금을 매겨서 만든 기금이면 이 목적 외에서는 가능하면 주지 말라는 건데 그런 목적에도 위배되고.

가져가서 기금 운용을 했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 나니까 실제 이게 2170억 정도 어마어마한 차액 손실도 보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은행에서 단기차입으로 예산 문제가 있을 때 써도 한 2.3%면 되는데 굳이 이걸 가져가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2000억 이상의 부담을 왜 주느냐는 거지요. 기재부에도 계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아마 재정 당국 입장에서든 충분히 이해할 여지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방사능폐기물 관리기금의 운용 수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갈수록 다가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약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쭙볼게요.

이 로열티를 줬다는 건 원천기술을 인정을 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이종배 위원 로열티를 아까 장관께서는 97년까지 줬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로열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 단위로 쭉 줬 왔던 건 언제부터입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제가 기억하기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license agreement)를 97년에 맺었고요. 97년에 맺은 것에 따라서 10년 동안, 2017년이 됐을 겁니다.

○이종배 위원 10년 동안 두 번, 2007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해서 2017년 이렇게 된 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이종배 위원 그럼 2017년에 10년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해 가지고 안 한 거지요. 그렇지요? 장관님도 그렇게 아셔야지 될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천기술을 인정했으니까 로열티를 줬고 그런 협의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게 굴욕적이다, 1억 7500만 불의 이런 적정성 문제는 이제 그다음부터 따질 문제고요. 너무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2017년도에도 3000만 불 단위로 계약을 했었다라면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이때 1월 달, 금년도 1월 달에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된 상태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뭘 이걸 서둘러서 하라고 대통령실에서 연락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 상당히 한수원 사장님을 압박지르던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속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글썄요, 기술 자립과 원천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 31일 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구두 합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협상 진행 내용은 어떤지 보니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에 대해서도 어제부터, 18일부터 50% 관세가 함량 비율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던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일 날 한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도 어떤 것을 좀 건의를 많이 하셔야지 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협력

해서 원원하는 그런 협의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공급망 협력 문제,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다든지 한일 FTA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국정위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이재명노믹스 이런 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 전체적으로 또는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입법 상황을 보면 기업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되고 있어요, 기업이.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우리 미래가 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달라지는 데 대해서 장관님이 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철강 관련 내용은 철강 관세를 50% 하겠다 하는 것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품목을 추가 조사하고 업계의 의견을 받아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1차 조사를 한번 발표를 했고 이번에는 2차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지금 협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협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협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계속 좀…… 이 내용이 저희만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고 일본, EU 다 같은 선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서로 협력해서 양국이 말씀하신 공급망이라든지 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위에 있는, 기업이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위 과제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이고 AI 에너지 고속도로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공급망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부분의 국정과제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황주호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24년부터 30년까지 앞으로 원전 수출 목표가 얼마였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24년부터요?

○정진욱 위원 예. 몇 기 정도 수출하는 게 목표였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원래 22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10기 수출을 2030년까지 하자 그렇게 정해져 있던 걸로 기억됩니다.

○정진욱 위원 그랬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정진욱 위원 윤 후보의 공약이었습니까.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은 꽤거라고 하셨지요, 황 사장께서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게 꽤거이고 한데 왜 올해 원전 수주전에서 스웨덴 2기, 슬로베니아

1기, 네덜란드 2기 사업 철수했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가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계속 쓸 거냐 아니면 미국 시장을 겨냥할 거냐에서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진욱 위원** 한수원이 저한테 낸 자료가 있습니다. 철수한 이유가 ‘SMR 사업 등 대외 경영환경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SMR 사업에서는 뭔가 좀 더 좋은 게 있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정진욱 위원** 그러면 원전 수출 앞으로 안 하고 SMR 수출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철수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SMR을 주로 하려고 지금 그쪽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맺은 협정에서도 SMR 수출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하여간 확인을 다음 기회에 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다음 기회가 언제입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저희한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50년 계약이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욱 위원** 50년 계약은 식민지 계약할 때 하는 겁니다. 일제가 강점하고 우리가 독립 전쟁했던 기간이 35년입니다. 노예 계약이나 약탈 계약이 그렇게 기간이 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느껴 봤어요, 서명하실 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워낙에 원자력 사업은 1기 지으면 60년, 80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정진욱 위원** 그게 지금 원자력 건설 계약이에요? 발주처하고 지금 계약한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발주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뭐 발주했을 때의 상황과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욱 위원**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도 없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급망도 없는 회사입니다. 원천기술 여부도 기술 자립했다고 그렇게 떠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97년 이전하고 비교하면 몇 배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1기당? 적어도 1년에 1기씩 수출한다고 잡으면 58배입니다. 그런데 목표로 따지면 2기면 100배가 됩니다, 116배가 되지요.

58배 로열티 주면서 국부가 유출된다는 생각 안 했습니까? 마음의 가책 없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97년까지의 그 내용은 주로 국내 사용에 대한 로열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까 대통령실 상대 안 한다고 그랬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는 직접 상대하지를 않습니다.

○**정진욱 위원** 황 사장이 대통령실 관계자 안 만났어요? 내가 증거를 대 볼까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이런저런 일로 만났을 수는 있으나 꼭 이 원자력 일로 만나지는……

○정진욱 위원 원자력 일로는 안 만났나요? 그러면 임명받기 위해서 만났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임명장은……

○정진욱 위원 황 사장 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 식으로 꺼들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화를 낸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얼마나 더 꺼들거렸는지 아시겠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꺼들거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진욱 위원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원전 철수할 건가요?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할 거냐고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일단 철수한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욱 위원 아, 철수했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정진욱 위원 왜 철수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폴란드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새 정부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수를 했습니다.

○정진욱 위원 유럽에서 철수한 이유가 이 협정에서 한수원이 원래 하고 있던, 한전과 한수원이 서로 지역을 나뉘던 것에서 유럽 지역을 웨스팅하우스가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한수원이 주도해서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철수한 것 아니에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욱 위원 유럽 시장 포기 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출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적당한 기회에……

○정진욱 위원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폴란드에 대해서는 폴란드 정부가……

○정진욱 위원 아니,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다 마찬가지로요. 그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지요?

한수원이 미국 시장에 들어갑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미국 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어떻게요? 밀입국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정진욱 위원 사업 주체로 미국에 들어가느냐고요, 한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다음번에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진욱 위원** 왜 멀쩡한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거짓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유럽 시장에 계속 있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미국 시장에 가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지요.

○**정진욱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한미 관세협상 때 조선업이 큰 지렛대 역할을 했는데요. 마스가(MASGA) 펀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1500억 불……

○**서일준 위원** 1500억 불이지요? 한 200조 원 넘는 금액인데 지금 조선 빅3 시가총액 흑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가 펀드가 빅3 시총의 2배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펀드를 어떻게 쓸 겁니까, 펀드 조성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때도 말씀……

○**서일준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미국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구체적인,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저희가 미국의 MRO 사업 파트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상선 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있고 또……

○**서일준 위원** 지난번에 31일 날 대통령 정책실장이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그러면 주요 쓰임새가 국내 조선소의 미국 조선소 인수 및 시설 투자 그다음에 국내 조선소가 투자한 현지 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할 경우에 보증이라든지 양국 공동으로 하는 조선 R&D가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이것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데 1500억 불 조성해 가지고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퍼 주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 회수 가능한 형태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그러면 이게 국내 조선사들한테도 혜택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지금 우리 조선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지금 존스 액트뿐만 아니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때문에 비전투함만 MRO 사업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이게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면 전투함도 MRO 가능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이것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미국에서 그것을 수정, 개선하기로 이야기……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그것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통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지금 조선업이 실제 오욕병기이다, 겉으로 외관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LNG 화물창도…… 원전도 웨스팅하우스한테 이야기하지만 화물창도 원천기술 로열티를 지금 척당 5% 주고 있어요. 이것 충분히 국산화할 수 있는데 산업부가 그동안 방기하고 있던 겁니다. 이것도 있고요.

지금 액화수소운반선 화물창 개발하는 것도 있고 자율운항선박도 있고 SMR 추진체 선박 기술개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R&D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오늘 주제 중의 하나가 원천기술 이슈가 나왔는데 있어 보면 그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고 말씀하신 LNG 화물창도 그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계속 저희들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서일준 위원 지금 KOGAS하고 업체하고 소송 가지고 산업부에서 방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천억 로열티가 프랑스 회사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론을 안 합니다,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세요, 장관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각별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다음에요 지금 조선 3사가 잘나간다고 하니까 지역 경제도 잘나가는 줄 아는데 지역 경제는요 더 어렵습니다.

이것 왜 어려운지 장관님 아세요? 왜 어려우냐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외국인 인력이 전부 다 들어왔어요. 현장에 생산직 인력의 최고 젊은 사람이 30대 후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30대 중반 노동자들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저희 지역구인 거제만 해도 조선 인력에 1만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외형은 괜찮은데 지역 경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내국인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들어오려면 결국은 돈입니다. 돈을 많이 줘야 내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데 돈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화물창 국산화라든지 로열티 안 주면 임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문제입니다. 주 52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돈이 되니까 오는 겁니다. 장관님, 현장에 가 보시면 조선업은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 날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추울 때도 할 수 없습니다. 비 올 때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공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날씨 좋고 일할 수 있을 때는 주 52시간이 맵시입니다. 일할 수 없을 때는 주 10시간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바꿔 줘야 되는데 주 52시간으로 묶어 놓으니까 조선회사는 잘 나가는 데 지역은 지금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이것 반드시.....

장관님,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풀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는 엇그저께 조선업 회사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기온이 39도 되는데 정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일을 못 하고 휴게시간을 갖게 되는 상황도 봤고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주변 상가에도 갔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것 보면서 참 조선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심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R&D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각별하게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주 52시간제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논란은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우리가 한미 관세협상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걸 조선업 가지고 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조선업도 지금 병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조선도 몰락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 인력들은 자기들 돈 벌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기술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인 인력을 키우려면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조선업을 관세협상 지렛대로만 써 가지고는 안 되고 미국 조선소도 일으켜야 되

지만 대한민국 조선소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정책을 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시 후에 장관께서 이석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소위 회부 안전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는데…… 이재관 위원님 꼭 하고 싶으시면 잠시 기다리시고. 원래 계획했던 질의가 소위 위원이 아닌 박성민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지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박지혜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질의 순서를 뒤로 가라고 하셔 가지고 뒤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철규 글썽요, 그러면 뒤에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잠깐 뭐 확인, 한 2분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2분만 드리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장관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은 비밀유지협약 준수 의무가 돼 있는 계약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언론에 왜 이게 나왔습니까? 어떤 경로로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가 간의, 특히 국가의 주요한 기관 간의 국제적인 협약이나 특히 비밀 준수의무가 붙어 있는 이런 것은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언론에 나와 가지고…… 이게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전 정부 지금 정부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지금 전 정부는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이미 끝이 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전 정부 탓만, 정치적으로 공격만 해서 과연 우리 국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체크 원전 계약은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한 것 아닙니까?

○김정호 위원 그 전에 해 가지고 넘겼지요.

○박성민 위원 남 질의하는데 좀 가만히 계세요.

정식계약은 6월 4일 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해서……

○김정호 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요, 간사님.

○위원장 이철규 자, 잠시……

○박성민 위원 아니, 본계약은 6월 4일 날 한 것 아닙니까?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하세요. 그냥 계속 질의하세요.

○김정호 위원 그 전에 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좀 조용히 계세요.

○박성민 위원 아니, 남이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호 위원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박성민 위원 위원님, 삼선쯤 되시면 똑바로 해요, 똑바로!

○김정호 위원 똑바로 하세요. 삼선이고 뭐고 간에 사실관계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삼선까지 한 사람이 말이야, 정신 차리세요!

○위원장 이철규 자, 그만……

○박성민 위원 왜 남 질의를 하는데……

○김원이 위원 간사님, 동료 위원한테 ‘정신 차리세요’가 됩니까.

○박성민 위원 정신 차리세요.

○김정호 위원 누가 차려, 누가!

○위원장 이철규 자, 조용히들 하시고 진정하세요.

○박성민 위원 본계약은 6월 4일 날 한 겁니다, 6월 4일 날.

○위원장 이철규 진정하시고 다른 분 질의할 때……

○정동만 위원 들어 봅시다, 좀. 들어 봅시다.

○김정호 위원 들어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본계약을 할 때 체크……

○정동만 위원 날짜를 모릅니까, 계약 날짜?

○박성민 위원 장관님, 원전 본계약을 할 때……

중단시킬 것 없습니다. 뭐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본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본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6월 4일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이재명 정부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6월 5일 날 계약 안 했나요?

○박성민 위원 물론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는 합시다마는 이 계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으면 정부 관계자들이, 장관님은 안 계셨겠지만 정부 담당 관계자들이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원전 원계약할 때 그것 새로운 대

통령에게 보고 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실패한 정부에 대해서 자꾸 탓을 하고 공격할 문제가 아니고……

이번 25일 날 우리 새로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의 원전 관련한 회의가 잡혀져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우리나라의 국부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우선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비밀협약 준수한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을 때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로 간에 원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는 국무위원, 장관을 떠나서 체코 원전은 박근혜정부 때 시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수고를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마지막 계약은 이재명 정부에서 됐던 것처럼 어느 특정 정권이나 파를 떠나서 국익 관점에서 좀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국회의원, 정당·여야가 나눠져 있는 정치인이기 전에 같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서 이 정부 저 정부 탓할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당 당론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도움을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공격만 하고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의무를 한다고는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에 UAE 2009년에 계약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리베이트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바라카 원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때도 제 기억에 4개 원전에 한 20억 불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2조 정도 들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2조 정도를 리베이트 성격으로 지불을 했다 그러면, 16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보면 이번에 체코 원전이 그렇게 엄청난 터무니없는 돈을 줬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하고,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면밀히 살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 여야를 떠나서 흔들림 없이 국익 앞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던 질의는 계속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장관님, 저희 유전개발사업 출자 명목으로 작년에 481억 원이 편성됐고요 그중의 329억 원이 한국석유공사에 출자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봤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하셨던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2월까지 1차 시추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두꺼운 덮개암, 세일층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혹시 언제쯤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괜찮으시다면 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은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정밀검사를 용역업체가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박지혜 위원 언제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지금 조금씩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올해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공개나 소통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인정하신 바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동안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장관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소통의 과정이라든지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체코 원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중요한 대통령님의 협상 과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주요한 계약의 내용을 정말 송두리째……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 협정서를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다 됐는데 저희 위원들에게 공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사를 콘택트해서 공개할까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조금 전에 위원장님 그리고 한수원·한전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건 정상회담을 마치고 적정한 시점에 우리 상임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다루는 시간을 갖는 걸로 이야기해서……

○박지혜 위원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박성민 간사께서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 총 2조 원가량의 리베이트성 자금이 웨스팅하우스에 제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지난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186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설비 공급 명목으로 2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하면서……

한전 사장님, 여기 계시지요?

이거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여쭙았는데 그때도 정보 이것은 비공개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밀유지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공지의 사실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 방에서 떠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코 원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변화됨에 따라서 각각 입장을 달리해서 공세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SMR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국가가 수천억 원을 들여서 R&D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외에 계속 수출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체코 원전 단일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간 어떻게 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웨스팅하우스와 서로 협상을 할 때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런 계약들을 작성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같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동안 한수원 사장님, 한전 사장님 그리고 산업부장관님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사를 제공하고 수치를 확인하는데도 비공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반복하시거든요.

오늘도 황주호 사장님,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신 이유를 좀 여쭙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철규 아까 이게 계속 반복된 질문이 나와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이재관 위원님,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시간한 3분 드리지요.

○이재관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체코 원전을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어떤 적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의 바람직한 하나의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거든요.

특허청장님께 좀……

특허 지적재산권, 특허권 그게 일반적으로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예, 일반적인 특허권은 20년입니다.

○이재관 위원 특허권 2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허청장 김완기 특허를 주는 경우에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는 기간

을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것을 이양을 받는다든지 활용을 할 때 어떤 로열티를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예, 실시하는 범위에 따라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이 있는 경우에 실시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원전 기술도 이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특허청장 김완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런 지식재산권 관련된 이슈가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수출통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지금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것이 국내법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제법상의 어떤 통상적인 관례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특허청장 김완기** 일반적인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국내법에 따라서 보장을 해 주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PCT라는 특허 관련된 국제조약이 있어서 그 조약에 따라 가지고 20년이라는 거의 공통된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글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관계에서의 통상적인 계약은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원전 계약 같은 경우는 수출통제 이슈가 있어서 완전히 일반특허 계약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아니, 50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수원 사장님께서 사업의 특성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 보고 싶었고 또 그전에도 10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금까지의 관례하고도 벗어나는……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 정서적으로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석을 해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이석하기 전에, 두산에 계셨으니까…… 두산이 체코에 있는 스코다를 인수하게 된 배경이 거기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쪽이 필요했었나요, 아니면 스코다가 가지고 있는 가스터빈의 원천기술이 필요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원천기술이 필요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원천기술이 필요해 가지고 인수하게 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 원천기술이…… 그 기술을 우리가 저렇게 똑같이 물건을 두산중공업에,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이 똑같이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해외에 수출할 때는 이 원천기술의 사용권 문제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인수하게 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처음에는 제조도 어려웠는데 내주화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래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의 특허청장에 대한 질문 중에 국제 관행으로 국제사회에서 특허권의 시효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느냐 할 때 20년이라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놓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해 보시는데 오늘……

장관님, 일어나십시오. 빨리 가세요.

○**김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드릴게요. 우선 장관님 빨리 가시라 하고요, 한미 통상 문제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회의 초기에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3사 간의 비밀협정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최종계약서. 지금까지 제출 안 했지요. 그다음에 내용을 질문해도 결국 출구를 마련해 달라, 공식적으로 청문 자리든 국정조사 자리든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한결같이 주장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위원회 결의로 국정조사는 청문회든 개최를 위원장께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회의 진행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들의 현안질의를 이미 하기로 했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입을 막는 것은 이것은 민주적인 우리 상임위 운영에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합의 이전에 각각이 동료 위원들한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냐,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 협조해 달라 이런 양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입을 막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입니다. 두 분 간사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김원이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이철규** 아니, 됐습니다.

○**김원이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저도 자료 요청……

○**위원장 이철규** 글썄요, 김원이 간사님, 잠시만 이 발언을 좀 하고……

양당 간사님, 앞으로 질의시간이라든가 질의 횟수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실 때 소속 정당의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도……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들 간에 예산소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산소위 소속 위원님들은 좀 양보를 하고 그렇지 않은 여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라고 했었는데 또 예산소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오늘 지난해 회계 결산보다는 아마 아침에 서울경제가 보도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한전 간의 무슨 계약 내용이라고 하는 보도 때문에 현안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님들의 욕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도 야당 소속의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25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의 하나가 차질이 있을까 우

려되는 마음에서 시간을 뒤로 좀 미루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든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지난 이 체코의 원전 수출 계약을 따낸 것은 어느 1개 정부의 공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노력해 온 우리의 결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모두 다 공개하고 하나하나를 회계감사하듯이 이게 남는 계약이냐 아니면 손해 보는 계약이냐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방어하는 쪽, 답변해야 하는 쪽의 여러 가지 부담·어려움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지 못하는 입장을 우리가, 정부가 여러 번……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이미 여당과 야당이 적어도 네 번 이상 공수가 바뀌어 봤습니다. 정부를 운영도 해 봤고 또 견제도 해 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존중하면서……

우리가 본질이 뭐겠습니까? 불평등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야당이 아닌 여당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25일이 지나고 난 다음, 다음다음 회의 때 좀 더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검증하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간사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산자부1차관님·2차관님, 장관님이 이미 가서 가지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위한 한전·한수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간에 맺은 지적재산권 분쟁 합의와 관련한 진상 파악을 지시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산자부가 웨스팅하우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하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내용은 받았고 일단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공유했으면……

○**위원장 이철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25일까지는 가급적 여기 국회에서 논쟁거리를 안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협약이 맺어지게 된……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아니, 글썄 좀 이따, 발언하잖아요. 끝나면 기회 드릴게요.

○**김정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25일에 뭘…… 위원장님이 언제 국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구자근 위원**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발언을 몇 번 하시던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그런데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철규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철규** 내가 왜요?

○**김정호 위원** 뭐 때문에……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25일 방미에 그렇게 걱정하셔 가지고 할 말 못 하게 막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걱정하면 다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해 버리지 그래요?

○**김정호 위원** 아니, 이게 공개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그거 계약된 거 하나 그렇게 그게 업적이라고 서로 폄하합니까? 예?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공동체 질서에 좀 따라 주세요. 이제는 여당 위원이지 않아요, 여당 위원. 여당의 중진 위원께서 품격을 지켜 주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정호 위원** 합당하게 하세요, 합당하게.

○**위원장 이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대체토론 및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강승규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8월 25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관·청장을 비롯한 소속 부서장들과 배석 공공기관장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늦게 서면질의 제출하셨네요. 추가로 김정호 위원님이 서면질의 제출했습니다.

8월 21일은 예산결산소위원회가, 8월 25일 15시에는 결산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했지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승규 곽상언 구자근 권향엽 김동아 김성원 김원이 김정호 김한규 박상웅
박성민 박지혜 서왕진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정동만 정진욱 허성무

○청가 위원(5인)

김성환 나경원 이언주 전재수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권

제1차관 문신학

제2차관 이호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에너지정책실장직무대리 조익노

정책기획관 안창용

산업정책관 강감찬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전력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수소경제정책관 최우혁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통상협력국장 김종철

다자통상법무관 오충중

투자정책관 유법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김대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차관 노용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직무대리 김정주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귀현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관 김우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정균
특허심사기획국장 정영우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황주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영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민병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

【보고사항】

○의안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이상 2건 8월 6일 회부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4)

이상 2건 8월 7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1)

이상 2건 8월 8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1)

8월 11일 회부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8월 12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이상 2건 8월 1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4)

8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청원 회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5. 7. 25. 이태성 외 50,226인으로부터 제출)(의안번호 2200206)

7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50	36	22	4	268
중소벤처기업부	21	14	29	3	73
특허청	4	12	14	3	32